

미리 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, GTX 홍보관에서 만나 보세요

- 홍보관이 위치한 GTX 수서역도 GTX 정거장 중 최초 연내 준공 예정
- 22일 오전 개관식 열려... 오후부터 일반관람 가능(연중 무휴, 07시~22시)

□ GTX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GTX 홍보관이 12월 22일(금) GTX-A 수서역에 개관한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'24년 3월말 GTX-A(수서~동탄) 구간 최초 개통을 앞두고 GTX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, GTX에 대한 정보*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GTX 홍보관을 마련하였다.

* 노선별 정보, GTX만의 편의성·안전성 등 특징점, GTX 사업에 적용된 첨단 공법 등

- 이날 개관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하여 홍보관 개관을 축하하고, GTX 국민참여단과 함께 GTX 정거장 중 최초로 연내 준공 예정인 GTX-A 수서역도 둘러볼 예정이다.

□ GTX 홍보관은 GTX의 태동 배경부터 GTX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총 9개*의 전시 영역으로 구성됐다.

* ① 안녕, GTX (Welcome GTX), ② GTX, 여정의 시작 (Under the GTX), ③ 알려줘, GTX (Intro GTX), ④ 믿을게, GTX (Trusted GTX), ⑤ 어디갈까, GTX (GTX Map), ⑥ 괜찮아, GTX (Noise care GTX), ⑦ 굉장해, GTX (Cinema train GTX), ⑧ 안전해, GTX (Safety on GTX) ⑨ 부탁해, GTX (Why GTX)

- 특히, 실감영상관(굉장해, GTX)은 관람객이 GTX 열차 좌석에 앉아 열차 운행 모습과 GTX가 가져올 미래 모습 등을 화려한 입체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으며,

- 대심도 터널 공사 및 GTX 열차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각 퀴즈존(괜찮아, GTX)도 마련되었다.

- GTX 홍보관은 연중무휴로 07시~22시까지 운영 예정이며, SNS에 방문 소감을 남긴 방문객 중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GTX 이벤트도 진행된다.
-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“GTX 홍보관 개관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혁명을 이끌고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의 주축이 될 GTX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면서,
 - “국민들께 약속드린 일정에 맞춰 GTX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공정·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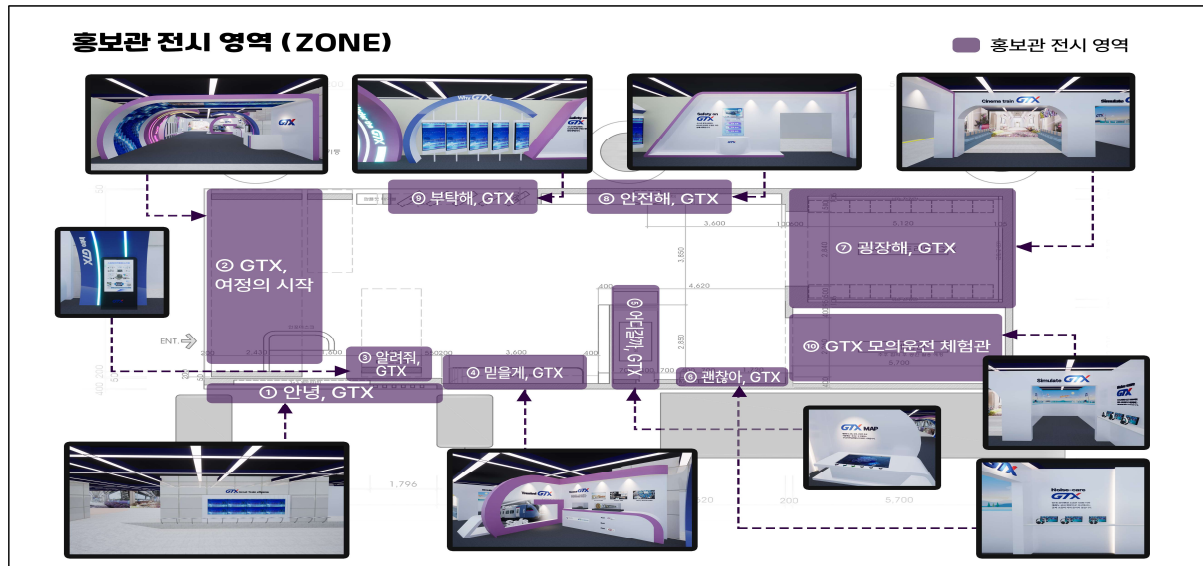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안재혁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	서기관	이상욱 (044-201-3978)
			사무관	심보경 (044-201-3967)
			주무관	안남현 (044-201-3978)
			주무관	송인규 (044-201-4024)



참고

GTX 홍보관 주요 콘텐츠

- 혁신적 교통체계 개선 및 기대효과 내용을 포함한 홍보영상 제작 및 GTX 홍보관 내 국민이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



- ① (안녕, GTX) 홍보관 외측에 GTX 사업효과*, GTX사업 추진현황, 대심도 터널 굴착(TBM) 공법의 기술력·안전성 등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
* 기존 대중교통 대비 획기적 이동시간 단축 등 GTX 강점 소개
- ② (GTX, 여정의 시작) 대심도 터널을 형상화한 LED 터널을 통해 미래를 향해 달리는 GTX의 모습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
- ③ (알려줘, GTX) GTX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, 사업참여자 등 안내
- ④ (믿을게, GTX) TBM 모형 설치,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 홍보
- ⑤ (어디갈까, GTX) GTX 노선도(A, B, C) 및 노선별 역사 정보 제공
※ 향후 A·B·C 연장 노선 및 D·E·F 신설 노선 추가 가능
- ⑥ (괜찮아, GTX) GTX 공사 및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람객이 참여하는 사운드 퀴즈
- ⑦ (굉장해, GTX) 친환경성, 신속성 등을 강조한 실감영상 제공
- ⑧ (안전해, GTX) 공사 및 운영 중 안전대책·방재시설 소개
- ⑨ (부탁해, GTX) GTX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체험형 스토리 제공